세이렌부터 인어공주까지…바닷속 환상의 동물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⑭ 서양 신화 속 인어(人魚)



청동 세이렌상(이탈리아 16세기,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토기에 표현된 트리톤과 헤라클레스의 결투(그리스 기원전 5세기경,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作 인어공주(영국 1900년, 런던 왕립미술아카데미).

장맛비가 내리면 더위가 한풀 꺾일 줄 알았더니 아직도 후텁지근하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는 듯하다. 전편에서 중생을 극락(極樂)으로 인도하는 반야용선(般若龍船)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바다를 대표하는 환상의 동물인 인어(人魚)를 다뤄보겠다. 동서양과 불교문화권에 등장하는 인어에 관한 글 두 편을 통해 조금이나마 여름 더위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서양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 인어

인어는 동화부터 민담, 설화 등 다양한 이야기에 등장하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가슴 한편에 묻어둔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다. 서양에서 인어를 뜻하는 머메이드(Mermaid)는 고대 이집트에서 물을 의미하는 메르(Mer)에서 유래됐으며, 이 단어는 바다와 관련된 수많은 물체와 현상을 지칭하는 폭넓은 용도로 사용됐다.

흔히 인어라고 하면 동화작가 안데르센(Hans Christian Andersen)의 〈인어공주〉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인어공주〉는 사랑하는 왕자를 위해 목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인간이 되고자 했던 인어공주의 가슴 아픈 러브스토리다. 1837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소설과 애니메이션, 영화 등 다양한 장르로 각색돼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작품 속 인어공주 이미지는 대부분 가녀리고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으로 표현됐다. 그렇다면 서양문화 속 인어는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었을까? 꼭 그렇지는 않다. 서양 신화에 등장하는 인어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그로테스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스킬라(Scylla)'라고 불리는 괴물 인어다. 호메로스(Homeros)의 〈오디세이아(Odysseia)〉에 등장하는 스킬라는 원래 아름다운 요정이었는데 마녀의 저주로 끔찍한 괴물이 된다.

그 형상은 하반신이 물고기이고 허리 주변에 들개 머리와 뱀이 달린 오싹한 모습이었는데, 이 괴수들은 항상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면서 굶주림에 울부짖었다고 한다. 추악한 몰골로 변한 스킬라는 괴물이 된 자신에게 절망해 분노에 사로잡혔고 성격까지 포악해졌다. 이에 주변의 모든 생물을 잡아먹었는데, 특히 항해 중인 배를 난파시켜서 선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다고 한다. 〈오디세이아〉에서는 주인공 오디세우스(Odysseus)가 스킬라가 살고 있던 메시나 해협을 지나다가 아끼던 부하를 여섯이나 잃었다고 기록돼 있다.

인어 뜻 '머메이드', 물 의미 '메르'서 유래
서양 작품서 아름다운 소녀·괴물로도 등장
신화 속 세이렌, 르네상스 시대 인어 변모
해신인 트리톤도 남성 인어로 '독특' 사례



스킬라 문양 관장식(그리스 기원전 4세기,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인면조에서 인어로, 세이렌

초기 서양 인어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는 세이렌(Siren)이다. 경찰서와 소방서 등 여러 기관에서 위급 상황을 알리는 신호음을 뜻하는 세이렌의 어원이 바로 이 환상의 동물에서 시작됐다. 세이렌은 그리스신화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선원을 유혹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세이렌이 처음부터 인어였던 건 아니다. 실제로 여러 기록과 미술품에 묘사된 세이렌을 보면 불교문화 속 가릉빈가(迦陵頻伽)와 공명조(共命鳥)처럼 사람 얼굴에 날개가 달린 인면조(人面鳥)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세이렌은 중세 유럽부터 물고기 꼬리가 추가되기 시작했고, 르네상스에 이르러 지금의 인어 도상으로 정립된다. 그렇다면 새의 요소를 지니고 있던 세이렌이 어떤 이유로 물고기 신체로 교체된 것일까?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추정은 가능하다. 바로 바다라는 배경 때문이다. 본래 세이렌은 바다 위를 날아다니면서 노래와 음악 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하는 모습으로 표현됐다. 이러한 세이렌이 바다라는 미지의 공간, 즉 바다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 두려움과 만나게 됐고 깊은 해저 속에 사는 미스터리한 존재로 점차 변한 것이다. 게다가 본래 사는 장소도 바다였으니, 새보다는 물고기 요소를 지닌 인어 형상이 좀 더 알맞지 않았을까?

이후 세이렌은 서양 인어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는다. 그 이미지는 두 개의 꼬리를 잡고 왕관을 쓴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인데 일부 국가에서는 두 꼬리 인어, 메로우(Merrow) 등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린다. 현재의 세이렌은 유명 커피 브랜드를 비롯한 여러 콘텐츠와 로고 속에서 우리를 반기고 있다.

신의 아들, 트리톤

앞서 본 서양 인어가 모두 여성이었다면 이번에 소개할 인어는 남성의 모습을 지닌 독특한 사례다. 바로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아들, 트리톤(Triton)이다. 인어인 동시에 해신(海神)이기도 한 트리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Poseidon)의 아들이다. 그렇기에 트리톤이 인어 도상을 지닌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트리톤은 인간 상반신에 장어를 연상시키는 긴 물고기 하반신을 지니고 있는데, 포세이돈의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인지 아이 혹은 청년의 모습으로 표현된 경우가 많고, 소라 나팔을 불거나 서양 신화 속 해마(海馬)인 히포캄푸스(Hippocampus)를 탄 모습도 확인된다.

그리스신화 속 트리톤은 바다의 사령관이자, 바다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지만 아버지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트리톤은 그리스신화에서 그리 비중 있는 편이 아니다. 그런데 트리톤에 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전한다. 바로, 영웅 헤라클레스(Heracles)와의 결투다. 영웅 헤라클레스와 신의 아들 트리톤은 과연 어떤 일로 결투를 벌이게 된 것일까?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죄를 참회하기 위해 열두 가지 과업을 수행하는 여정을 떠나게 된다. 이 가운데 열한 번째 과업이 서쪽 끝 요정 헤스페리데스(Hesperides)가 지키는 정원에서 황금사과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고 헤라클레스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헤라클레스는 한 가지 정보를 얻게 된다. 정원의 위치를 알고 있는 자가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자가 바로 트리톤이었고, 헤라클레스는 트리톤에게 정원 위치를 알려 달라고 청했다.

그런데 트리톤은 헤라클레스에게 결투 내기를 했다. 자신과 힘겨루기에서 이기면 정원 위치를 알려준다고 말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트리톤은 바다의 사령관 역할을 할 정도로 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헤라클레스와의 결투도 자신 있던 것이다. 두 사내는 서로를 움켜쥐고 긴 시간 동안 대치했고, 힘이 먼저 빠진 트리톤이 고꾸라지면서 결투는 헤라클레스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고 한다.

위 에피소드가 〈신통기(Theogony)〉 등 정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후대에 각색됐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두 사내의 결투 장면은 남자의 낭만이 잘 반영돼서인지 상당한 인기를 얻게 된다. 현재 고대 그리스의 토기 문양으로도 표현된 트리톤과 헤라클레스의 결투 장면은 당시 그 인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신의 아들이지만 정정당당하게 결투에 임한 트리톤, 모두의 존경을 받은 영웅 헤라클레스, 둘의 낭만 넘치는 결투는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다.

마치며

동화책에서 접한 서양 인어는 고대 그리스에 이를 정도로 장대한 역사를 지니고 있었고, 다양한 모습과 성격을 보여주며 우리들을 상상의 나래로 이끌어줬다. 그렇다면, 동양과 불교의 인어는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인어는 서양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 동양과 불교설화에도 풍부한 인어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으며 미술로도 표현된다. 다음 편에서는 인도와 중국 인어 이야기를 풀어보면서 불교와의 연관성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다.



김용덕 작가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온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